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15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15
2020 년 11 월 15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4545256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4545256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1 월 15 일

차례

1. [그대들이하는사찰은착한사찰인가?]	3
2. [그러니까전태일정신이란게]	3
3. [민족정론지, 항상우익, 프롤레타리아슬레이어]	5
4. [색즉시공공즉시색]	6

4. [색즉시공공즉시색]

요사이 헤민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뜨거웠다. 헤민스님이 남산타워가 보이는 삼청동에 거주한다느니, 이 건물이 본인 것은 아니지만 불교단체의 소유이고, 2년전 헤민스님이 이것을 그곳에 매각했는데 그곳의 단체가 헤민스님이라던가.

인터넷 곳곳에서 풀소유드립이 넘쳐나고 현각스님도 이에 가세해 헤민스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헤민스님은 결국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선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찌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의 마음, 성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선禪의 가르침을 사바에 얽매여 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부처님 뜻에 따라 대중이 대오 각성하지 위해서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함을 어찌 방편에 불과한 무소유 따위로 묶어 두려 한다는 말인가. 아집과 몽상에 사로잡힌 마군들의 소행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헤민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방법으로 전하고자 했을 뿐이다.

거 헤민스님의 마음치 유학 교에서 사용하는 레이키靈氣가 허경영도 사용하는 대체의학이며 메이지 천황의 시를 읊으라고 하기도 하지만, 불교는 분명인과 연에 따라 생기는 고통을 끊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그러면 거 타로 카드 같은 것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불자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남녀 주선만 남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거나 이러한 좋은 일들을 헤민스님이 이제는 내려놓으신다니 그저 안타깝고 착잡할 따름이다.

그래도 뭐 그간 벌어들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니 된 것인가? 무릇 쪽팔림은 일순이고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던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1. [그대들이 하는 사찰은 착한 사찰인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비 협조를 비난하며 피의자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공격 시도 의아스러니 한 점은 추미애가 4년 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국가와 정보기관의 개인 사찰을 비판한 전력 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무슨 근거로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며 범죄의 낙인을 찍으려 하는가? 심사와 심판 권력을 독점한 채 대중과 유리된 권위 위에서 자의적으로 이를 휘두르는 존재, 그것이 보수정권이건 '진보'정권이건 어떠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모독도 허용할 수 없다. 정부는 급히 공개 절차를 법원 명령으로 제한하는 등 진화 예나 선 모양새지만 이는 단순히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권이 아닌 참여 정부부터 이미 개인의 권리를 욕보인 민간인 사찰은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이번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 후에 도 이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정원을 위시로 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문제는 한 나라 당 정권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민중의 권리를 제한하기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저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란 다 시 말해 개인을 율도리부터 벗겨내느냐 아랫도리부터 벗겨내느냐의 차이 만 있을 뿐이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물론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침해도 허용될 수 없으며 모든 종류의 사찰 행위를 규탄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3129700004>

2. [그러니까 전태일 정신이란 게]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열사의 기일을 앞두고 여러 집단에서 소위 ‘전태일 정신’의 계승을 이야기한다. 어느 대통령은, 열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면서 열사를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어느 국회의원은 노동 시간 제한의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 에 어느 노동 운동가는 노동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약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행동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철회하지 않고 계시니 열사를 추서했다. 그 국회의원의 당은 언제나 처럼 노동자의 처우 따위를 신경 쓰는 위선보다는 자본의 이익에 대농

고복무를하고있으니, “더일할자유”를주는것이전태일정신이되었다. 그노동운동가는사회적합의를주장하고, 민주노총이투쟁을멈추라고말하고있으니, 자기이익은내려놓고더약자를향한희생을하는것이전태일정신이된다.

아무래도, 자기가하고싶은말을늘어놓고, 대충‘전태일정신’이라는 말을가져다붙이는게이번주노동계의트렌드가아닌가싶다. 그리고그렇기에, 우리 < 아나키스트연대 > 역시, 트렌드에민감한조직으로써, 우리가하고싶은말을늘어놓아보기로하자.

전태일동지는법을번지르르게만들어놓고, 그집행은오직자본의 이익에만복무하는현실을규탄하며, 근로기준법화형식을거행했다. < 전태일 3 법제정 > 같은입법운동을하는것이아니라, 법이노동자를지켜줄수없음을폭로하고, 노동자의직접투쟁을조직하는것이전태일정신이다.

전태일동지는노동자였다. 그리고동료노동자들과함께스스로의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조직을만들고,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투쟁하던중, 국가폭력에탄압당하고, 스스로를불살랐다. 노동자의경제적조건개선을위한노동자의조직과그직접행동이, 국가권력의철폐가전태일정신이다.

전태일동지는노동자의노동조건이온전히지켜지는사업체를설립하고, 이로써더좋은조건을찾아오는노동자들을바탕으로전체노동자의노동조건을개선하겠다는“모범업체사업계획”을작성했다. 노동자의사업장과산업에대한자주경영과직접통제가전태일정신이다.

열사가산화한후, 한국의사회운동은허울좋은반독재민주화투쟁에서, 노동대중의조직과그투쟁의건설로돌아섰다. 활동가들은현장으로들어가노동조합을조직했고, 구로공단파업, 87년노동자대투쟁등노동대중의투쟁을조직했다. 정치적영역을벗어나노동자들의조직을건설하고투쟁하는것이전태일정신이다.

전태일은한명의노동자였다. 자기노동조건개선위해, 자기동료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해조직을건설하고투쟁한조직가였다. 전태일을“노동존중사회”라는프로파간다수단으로, “일할자유”를외치는자본가의선봉으로, “더낮은이와연대”하는정치인으로전용하지는않았으면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04AN4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51012001&code=910100
https://newsis.com/view/?id=NISI20201112_0016886062

3. [민족정론지, 항상우익, 프롤레타리아슬레이어]

민족정론지조선일보와한반도남쪽을구원할위대한당, 더불어민주당이모처럼한목소리를냈다. ‘집회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내비치는데에있어서말이다. 조선일보에서는한목소리를내면서개천절집회때는그리엄중히막더니이제는왜막지않냐떼를쓰고있었고, 민주당에서는언젠가그렇듯공권력의준엄함을보여달라고행정부에혀를내밀면서헹헹했다. 이에따른우리가‘Always Right’낙연대표님과문‘The Proletariat Slayer’재인각하께서는이렇게교시하셨다.

국민걱정을존중해대규모집회를자제해달라! 코로나확산의원인이되는경우에는엄정히법집행하겠다! 정말무서운이야기다. 우리나라키스트연대는파쇼들이험오스럽지만, 그들이헛소리를입에서썰자유는있다는논평을개제한바있다. 우리의주장은그때나지금이나마찬가지로같다. 자본과국가권력, 정당, 정치인, 언론인들은그입을다물라. 결국인민들이결정할문제임에도그들은끝까지국가권력에모두를종속시키려하고있다. 그들의존재자체가그것을위해탄생한것이라이해하지못하는바는아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험오스러운것은매한가지다.

집회의자유를그렇게나사랑하면서파쇼들의개천절집회를옹호하더니이제는‘좌빨’들의집회를편파하는모순적이면서도정말민족정론지다운말도, 항상우향을외치는이낙연대표님도, 프롤레타리아학살을즐기시는문재인각하께서도노동자들의분노를피할수는없다. 자본가들의폭압적인행보와정부, 정치권의말뿐인개혁, 말뿐인개량, 퇴보의지에노동자계급은투쟁을이어나갈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일어나기이전에도노동자계급이미항상죽음의위협에처해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일어났다고해서그것이변했는가? 오히려더더욱죽음의위협을느끼는체제로전환이되고있는것은아닌가?

정부와정치권, 그리고자본은인민의자유로운의사표출욕구를막지말라. 그리고인민이자신의목소리를내고말고있는인민이결정할문제이지, 정부와자본이결정할것이아니다. 당신들은역사의도도한흐름에서, 투쟁적역사의흐름속에서노동자계급에의해사라질존재들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90025.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4537&plink=ORI&cooper=NAVER
<https://www.nocutnews.co.kr/news/5447038>